



광주역사민속박물관 내일 개관



시립민속박물관이 근대 역사를 보강해 광주역사민속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27일 개관식을 갖는다. 사진은 근대의 모습으로 재현된 충장로 거리.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제공>

“역사의 숨결 더한 새 박물관에서 만나요”

지난 1987년 문을 연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은 남도의 다채로운 문화와 생활상을 소개하며 지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섰다. 또한 민속자료의 수집과 발굴, 민속문화의 전승에도 기여를 했다.

그러나 시대상의 변화와 근대 역사 문화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콘텐츠 개편, 박물관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명칭변경위원회를 구성,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역사민속박물관으로 변경했다. 또한 지난 3년여에 걸쳐 '박물관개보수 및 역사공간 구축' 사업을 통해 시설 보수, 기존 민속전시실 개편과 함께 근대역사 전시공간을 추가했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33년만에 명칭 변경
의병청 '절양루'·광주읍성 재현 등 근대사 보강
5·18 40주년, 4·19항쟁 역사성 담아낸 공간도

광주시립민속박물관(관장 김오성)이 근대역사를 보강한 광주역사민속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27일 새롭게 선보인다. 박물관은 바뀐 명칭과 전시내용에 걸맞게 비전과 정체성을 담은 박물관 로고 디자인(MI·Museum Identity)도 마련했다.

먼저 이번에 개편된 1층 남도민속실은 다양한 테마를 담아 선조들의 생활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했다. 지역의 아름다운 풍광을 토대로 의식주와 생업, 수공업 그리고 남도 특유의 예술과 관련한 주제에 맞게 구성했다.

도입부에 전시된 '분청사기전라도명항아리' (광주문화재자료 제23호)에 새겨진 '전라도'라는 글씨는 우리지역이 조선시대 대표적 분청사기 산지였음을 보여준다.

신설된 2층 광주근대역사실은 조선시대 광주읍성을 중심으로 생활상과 의향의 터전 광주를 소개한다. 이곳에는 광주 관문으로 위기 때마다 의병청 기능을 담당했던 절양루가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공간을 살려내기 위해 일제강점기 사라진 절양루를 재현하고, 대형 광주읍성 모형도 원형에 가깝게 재현했다.

고려 말 정지 장군이 왜구를 무찌를 때 착용한 것으로 알려



4분의1크기로 재현된 광주의 관문 절양루.

진 갑옷(보물 제336호)은 현존 최고 경번갑(철판 사슬갑옷)으로 평가받는다. 전문가들의 고증을 통해 고려시대 제작 당시 원형으로 복원된 재현품과 함께 전시했다.

임진왜란 당시 우리 지역 의병장 고경명·김덕령 장군과 관련된 자료들과 항일운동 선봉에 섰던 호남의병의 활약상을 담은 자료들도 볼 수 있다. 아울러 1920년대 일제 식민지 정책에 맞섰던 광주학생운동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 '이름 없는 별들'의 관람 공간도 마련했다.

무엇보다 1798년 정조 특명으로 과거시험을 치른 광산관(옛 무등극장 자리)이 재현돼 있으며, 합격한 이들의 명단을 기록한 '어고방목'이 눈길을 끈다. 길이가 무려 28m에 이르는 어고방목은 우리지역에서 열린 당시 국가 차원의 행사와 함께 광주 관아의 이모저모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또한 광주역과 우체국, 광주극장 등 광주 대표적인 명소들을 재현해, 포토존을 설치했다. 계림동과 중흥동 일대에 있던 경양방죽이 택지 조성으로 사라져버린 이야기를 비롯해 광주의 숨은 추억들도 다양하게 담았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역사성과 의미를 담아낸 공간도 있다. '5월의 파노라마'를 주제로 펼쳐지는 기획전시실에서는 5·18사망자 명단이 적힌 휘장을 볼 수 있다. 전체적인 전시 공간은 모두 3개 시선에 초점을 맞췄는데 항쟁 참여의 시선, 왜곡의 시선, 진실을 알리는 시선 등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5·18과 함께 4·19항쟁의 역사성과 당시의 진실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자료도 볼 수 있다.

한편 관람은 무료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꿈’

아산조방원미술관 6월28일까지

‘무한한 상상력과 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곡성군 옥과면에 있는 아산조방원미술관이 올 첫번째 전시로 가정의 달 기획전 ‘일상·꿈·연·꿈’을 오는 6월28일까지 개최한다.

점점 꿈을 잃고 살아가는 요즘이지만, 삭막한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도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꿈과 기발한 상상력을 보여주는 기획이다.

전시예 초청된 강동호·양재영·정승원·최순임 4명의 작가는 회화, 판화, 입체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으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보인다.

최순임 작가는 길고양이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경험했던 따뜻한 기억을 사회적 관계로 확장해 작품에 등장시킨다. 고양이와의 관계 속에서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고 긍정적 에너지를 얻은 작가는 동화적 느낌으로 등장하는 고양이와 소녀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정승원 작가는 세밀한 실크스크린 방식으로 일상을 풀어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장, 즐거운 이야기가 오가는 커피숍 등 자신의 경험이 묻어 있는 시공간의 기억을 작가 특유의 긍정성으로 밝



강동호 작 '화서지몽'



최순임 작 '길 위의 노래'

고 재미있는 화면으로 창조해냈다. 화사한 색감으로 사람들의 모습을 세밀하게 잡아낸 판화에서는 유쾌한 생명력이 느껴진다.

강동호 작가의 작품은 몽상적 풍경을 자아낸다. 화려하고 밝은 색감으로 표현해낸 추상적 이미지들은 우리가 상상속에서, 꿈에서 만났던 것들이다.

양재영 작가의 작품들은 상상력을 기반으로 창조된 애니메이션 캐릭터들로, 작가의 팝아트적 기법과 철학으로 재창조된다.

어린왕자 등의 캐릭터는 이미 기성세대가 된 성인들에게 지나온 추억의 향수를 불러오고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희망적이고 영웅적인 상징을 내포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KWANGJU HISTORY & FOLK MUSEUM

5·18 40주년 기념 공연 '애꾸눈광대-그날의 약속'

28~29일 광주아트홀

광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공연 '애꾸눈광대-그날의 약속'이 무대에 오른다. 28~29일 오후 7시 30분 광주아트홀.

'애꾸눈광대'는 80년 5월 투쟁의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후 민주투사가 된 5·18부상자 동지회 초대회장 이지현(예명 이세상)의 이야기에 예술적 요소를 가미시킨 연극으로, 지난 2010년 금남로에서 초연됐다. 아직까지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 왜곡되고 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연극으로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나라사랑예술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약 70분간 진행되며 80년 5월 신군부세력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17일부터 상무중정대전(진압작전)을 펼친 27일까지 열흘간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지현이 극본 및 총 감독을, 문광수 작가가 각색을 맡았으며 이현원이 연출했다. 한중근·김안순·정이형·윤석·주현지·함승우·유예린·김해수 등이 출연한다.

이날 공연에는 80년 5월 당시 전남도청을 지키다 고문으로 세상을 등진 김영철 선생의 막내딸 김연우가 안무를 맡았고 무용수로 특별출연한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선착순으로 50명을 초대한다.

/전은혜 기자 ej6621@kwangju.co.kr



'애꾸눈광대' 공연모습.

벤들리관광호텔

“각종 연회 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프로야구단지정숙소 **KBO LEAGUE** 승무원지정숙소 **KOREAN AIR** 승무원지정숙소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지정숙소 **t'way**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